

지역민과 함께한 40년 ... 글로벌 금융 우뚝

광주은행 오늘 창립 40주년

광주은행이 20일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광주은행의 현재 위상은 1천500여명의 직원과 131개 지점망을 갖춘 총자산 19조원 규모의 든든한 초우량 지역은행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전이익 1천299억원(당기 순이익 950억원)과 총자산 19조3천억원, 총수신 12조원, 총여신 11조2천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총자산은 88%, 총수신은 62%, 총대출은 101%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기조를 달려왔다.

1968년 11월 20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5가에서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출발할때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다. 당시 수신은 7억3천만원, 여신은 3억8천만원에 당기 순이익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설립 당시부터 추구해온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은행이라는 역

이어 5년만인 96년 총수신 5조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굴곡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97년 대인동시대를 연후로는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대우사태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아픔을 겪게된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감자와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2001년 우리금융지주(주) 자회사로 편입

총 자산 19조 ... 전국 131곳 지점·직원 1,500명

외환위기 이후 뼈깎는 자구노력 초우량銀 변신

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은 지역기업과 가계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익의 4%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민과 끊임없이 교감을 해왔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수신의 40%, 여신의 30%를 광주은행에서 맡고 있는 점은 지역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연대별로 보더라도 광주은행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75년에는 서울지점을 개설, 지역은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도권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79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로 본점을 옮긴이후로는 81년 처음으로 총수신 1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로는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돼 90년 총수신 1조원대에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 광주은행은 '강소(強小)은행'을 기치로 내실을 기하면서 수익증권 판매 등 비이자부문 수익을 크게 늘렸다. 지난 6월말 취임한 송기진 현 은행장은 바로 뛰는 밀착경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의 피부에 와닿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대표은행으로 성장한데는 지역민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은행을 넘어 동북아 중심은행으로 성장하는데도 믿음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일 오후 5시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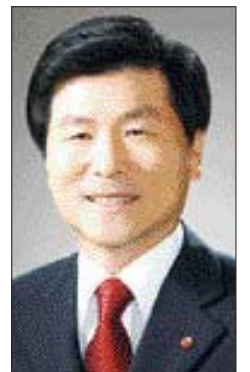
■ 송기진 행장 인터뷰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바로뛰는 영업맨'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CEO다. 영업에서 잔뼈가 굵다보니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고 중시한다. 지난 6월말 취임이후 시간날때마다 현장을 찾아다니며 밀착영업을 강화 하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 소감은, ▲결코 쉽지 않은 4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 드린다. 비록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더 어려운 시련도 이겨낸 만큼 당당히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5개월동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안다.

▲취임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중소기업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인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털 금융서비스인 '하이클러스터론'을 출시해 2개월만에 54건에 35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역내 소호(SO-HO) 기업들을 발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호명가'상품도 개발해 현재까지 창업역집 등 25개 소호명가를 지정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이제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고객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일수록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창구 텔러직 56명을 채용한데 이어 현재 20여명의 정규직인 채용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도 이런 사회공헌 활동의 일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광주은행의 대응 방안은,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구 100~200만 명의 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15세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해양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광주은행도 개혁과 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시중은행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금융', '지역에서 차별화된 금융'으로 위기에 극복하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수출, 6년만에 '마이너스'

11월들어 감소세 ... 내년 무역적자 60억달러 예상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 영업일수 기준으로 6년여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 수출이 올해 들어 20%대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주력 제품의 가격상승 효과가 컸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물량 뿐 아니라 단가도 하락하고 있어 수출 하강 속도가 더욱 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감소하고 수입금액도 6%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정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2009년 수출은 4천900억 달러, 수입은 4천956억 달러,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미 승용차 수출은 10월에 27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4% 급감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지난달에 무려 26% 급감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11월에도 투자릿수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교유가 혜택을 누리며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던 석유제품도 최근 국제유가의 폭락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석유제품은 이미 지난달에 선박류에

1위 자리를 내줬으며 앞으로도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10월에도 수출이 13.7% 증가해 투자릿수의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통신사들의 보조금 축소와 중저가 시장의 위축, 교체주기의 장기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제품도 지난달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후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조선업은 수주물량이 이미 4년 치를 확보한 데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저지하는 유일한 품목이 되고 있다. /연협뉴스

난방용 기름값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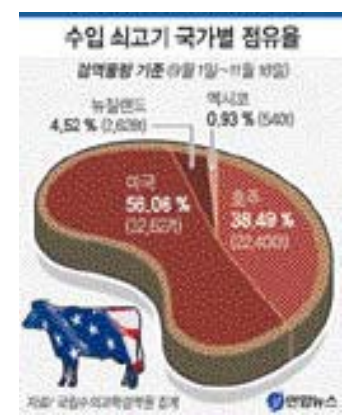
내달부터 등유·LPG 프로판 등 소비세율 인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프로판, 휘사·난방용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등유, LPG 프로판, 휘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별 소비세율을 30%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로 등유는 1당 34원, LPG프로판과 휘사, 난방용 LNG는 kg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

지급 규모는 1천600억원으로 재정부는 소비자가 부담이 약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특별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휘하·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된다. 기존 주택과 지방소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지방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연협뉴스

美 쇠고기 수출시장 한국이 1위로 올라

美 수출액 중 28% 차지



우리나라가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빗장을 풀 뒤 불과 3개월만에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국내 수입시장에서도 미국산은 이미 검역기준으로 호추산을 앞질러 점유율 1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할인마트 등을 통한 본격 유통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미국 농림부(USDA) 최신 쇠고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미국은 한국에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8천924만9천달러어치 쇠고기(뼈를 포함한 정육·beef)를 수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총 쇠고기 수출액 3억1천956만8천달러 가운데 무려 28%를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보낸 셈이다. 이는 대 멕시코(7천791만8천달러), 캐나다(5천893만2천달러) 수출액보다 많은 뿐 아니라 기존 아시아 최대 시장인 일본(2천970만1천달러)의 3배에 이른다. 물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수입 규모가 1만6천642t으로 멕시코(1만8천46t)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말 검역 재개 이후 상당 기간 작년에 들어와 대미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가 먼저 유통됐고, 8월 개야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생산된 물량이 본격 수입된 점을 감안하면 단 두 달만에 우리나라가 2008년도 미국 쇠고기 4대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연협뉴스

코스피 1000선 위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7거래일째 하락

코스닥도 300선 붕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로 19일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 300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가 또다시 맥을 못췄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의 강세로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도로 전 날보다 19.34포인트(1.87%) 내린 1,016.8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한때 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매도가 1천 200억원대로 줄고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한데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 매도로 7.85포인트(2.57%) 내린 297.41로 마감, 10월 30일 이후 15거래일만에 다시 300선 밑으로 추락했다. 이날 증시는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개인 외에 뚜렷한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로 휘둘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다 달러당 1.50원 내린 1,446.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초 화장 이렇게 하세요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부장 이승호) 직원들이 19일 광주 송덕고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미용법과 포인트 메이크업 요령 등 미용강좌를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